

## 사슴 피해 대책

### 조화가 무너진 자연

꽃사슴(Cervus nippon)은 주로 해발 2,000 에서 2,500m 높이의 미나미 알프스에서 풀을 뜯어먹다가 겨울이 되면 낮은 곳으로 이동해 내려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사슴들이 여름과 가을이 되면 고산지대인 해발 2,500m 이상의 지역까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100m의 높낮이의 이동 범위를 보이는 것은 전 세계 다른 사슴 개체군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사슴들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동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 밑에 있던 기존 풀밭에서는 이미 더 이상 충분히 먹이를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슴이 증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기적 요인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꽃사슴의 천적인 일본늑대가 20세기 초반 멸종되었습니다. 그 후 1980년대가 되면 생활 양식의 변화와 지방 쇠퇴화로 인하여 포수들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쇠퇴화가 진행되며 꽃사슴이 먹이를 구할 방치된 경작지가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적설량이 감소하면서 더 많은 사슴새끼들이 겨울을 넘기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미 알프스를 찾는 사람들은 사슴이 먹거나 수컷 사슴의 뿔에 긁혀 나무껍질이 벗겨진 사슴에게 피해를 받은 나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훨씬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것은 꽃봉오리 채 먹이가 되는 고산의 초원입니다. 2011년 이후, 일본 환경성과 현지의 자원봉사 단체가 협력하여 사슴의 침입을 막아 꽃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초원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